2019. 1.

《2018. 12. 14(금) ~ 12. 19(수)/ 중국(홍콩, 마카오, 선전)》

문화건설안전위원회 국외정책연수 결과보고서

전 라 북 도 의 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

Contents

목 차

제1장 연수개요 1

1 동기 및 배경 1
2 개 요 2
3 중점내용 2
4 주요일정 3
5 연수자 명단 4

제2장 주요 연수 내용 5

제1절 연수국 현황 5

1 홍콩(HONG KONG) 5
2 마카오(MACAU) 6
3 선전(SHENZHEN) 7

제2절 기관 방문 8

1 마카오 문화국 8
2 선전 전시 · 컨벤션센터 14
3 한국관광공사 홍콩지사 20
4 PMQ 32

제3절 기관시찰 및 현장 견학 38

1 펑산 헤리티지 트레일 38
2 란타우 비지터 센터 & 강주아오 대교 41
3 마카오 세계문화역사지구 46
4 콰이청 컨테이터항 & IFC빌딩 & 홍콩상하이은행 50

제3장 선진지 벤치마킹 52

1 관 광 52
2 문화유산의 보전 및 복원 54
3 마이스(MICE)산업 55
4 저상버스 등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56
5 걷고싶은 보행환경 조성을 위한 도시디자인 59

제4장 연수 후기 62

1 전라북도의회 정호윤 문화건설안전위원장 62
2 전라북도의회 이정린 문화건설안전부위원장 63

제1장 연수개요

1 동기 및 배경

○ 홍콩, 마카오 및 선전의 도시조성 및 문화관광정책의 발전상황을 비교 시찰함으로써 도내 도시디자인 정책에 반영할 수 있고 도내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창조적 아이디어 습득 및 정책대안을 제시

○ 관광시설 유지관리와 시설보존 등 관광객 유치전략 기술을 습득하고 문화·관광·체육정책 운영상황에 대한 선진사례 연구를 통해 도정 정책에 반영

○ 전통문화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 운영 및 특색있는 콘텐츠 개발로 차별화된 관광상품을 개발하여 지역의 대표적인 수입원이자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는 선진 외국을 벤치마킹하여 전통문화 자원을 활용한 민선7기 문화관광 정책 방향을 제시

○ 연수지의 관광공예품 등 관광기념품을 살펴보고 도내 관광기념품에 관련된 현실적인 정책대안을 찾는 기회로 활용

○ 도시개발의 주도적 패러다임인 도시재생 선진 사례 접목을 통해 전라북도의 주거환경 · 문화관광 · 경제 등과 조화를 모색하고, 성공적인 도시재생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탐구

2 개 요

○ 연수기간 : 2018. 12. 14(금) ~ 12. 19(수) / 5박 6일

○ 방 문 국 : 중국(홍콩, 마카오, 선전)

○ 방 문 단 : 13명

- 의 원 (8) : 문화건설안전위원 7명, 부의장 1명
- 의원보좌 (5) : 문화건설안전 전문위원실 4명, 정책연구4팀 1명

3 중 점 내 용

연번	성 명	연구 분야	비 고
1	정호윤 위원장 이병도 위원 김대오 위원 나인권 위원	▸ **선진문화시설 및 관광 인프라 점검** · 선진국의 선진 문화시설 및 관광시설 벤치마킹 · 문화시설의 관광화 방안 모색 · 관광 인프라 설치 현황 · 전라북도 관광발전 방향 모색	
2	이정린 부위원장 조동용 위원 이한기 위원 한완수 부의장	▸ **마이스산업 육성 관련 점검** · 선진 컨벤션 시설현황 점검 · 컨벤션 뷰로 지원 내용 및 현황 점검 ▸ **도시재생 분야 점검** · 지역주민 참여사례 및 운영 실태 등 점검	

※ 당초 방문 예정이었던 **홍콩 쟈키클럽 재난준비 응답협회는 해당 기관의 일정으로 인해 방문 취소 됨**에 따라 연구분야가 변경됨

4 주 요 일 정

날 짜	장 소	시 각	일 정	비 고
12/14 금	전주	07:00	전라북도의회 집결 후 출발	
	인천	13:40	인천 국제공항 출발	
	홍콩	16:50	홍콩 국제공항 도착	
		18:00	석식 후 호텔 투숙	
12/15 토	홍콩	10:00	핑산 헤리티지트레일 시찰(홍콩의 대표적인 트래킹코스)	
			※ 휴양 힐링거점(동부권 6개 시·군) 유사 사례	
		12:00	중식	
		13:30	란타우 비지터 센터 시찰(Lantau Link Visitors Centre)	
			※ 칭마대교(Tsing Ma Bridge), 팅카우대교(Ting Kau Bridge)	
			콰이청 컨테이너 항 시찰(동아시아 최대 항구)	
		18:00	석식 후 호텔 투숙	
12/16 일	홍콩	10:00	마카오 이동(강주오아 대교 이용)	
			※ 강주아오대교(Zhuhai-Macau Bridge)/ 세계에서 가장 긴 교량	
	마카오	12:00	중식	
		13:00	마카오 세계문화역사지구 시찰(성바울 성당, 성도미니크 성당, 세나도 광장 등)	
			※ 유네스코 등재 백제역사 유적지구 유사사례 등	
		15:30	**(공식방문) 마카오 문화국**	
		17:30	석식 후 선전으로 이동	
	선전	21:30	호텔 투숙	
12/17 월	선전	10:00	**(공식방문) 선전 전시 · 컨벤션센터**	
		12:00	중식	
		13:30	열차편으로 홍콩으로 이동	
	홍콩	15:30	**(공식방문) 한국관광공사 홍콩지사**	
		18:00	석식 후 호텔 투숙	
12/18 화	홍콩	10:00	IFC 빌딩 및 홍콩 상하이 은행 시찰(홍콩의 랜드마크)	
		12:00	중식	
		15:00	**(공식방문) 홍콩 PMQ(元創方)**	
		18:00	석식 후 호텔 투숙	
12/19 수	홍콩	09:00	공항으로 이동	
		12:05	홍콩 국제공항 출발	
	인천	16:45	인천 국제공항 도착	
	전주	22:00	전라북도의회 도착	

5 연수자 명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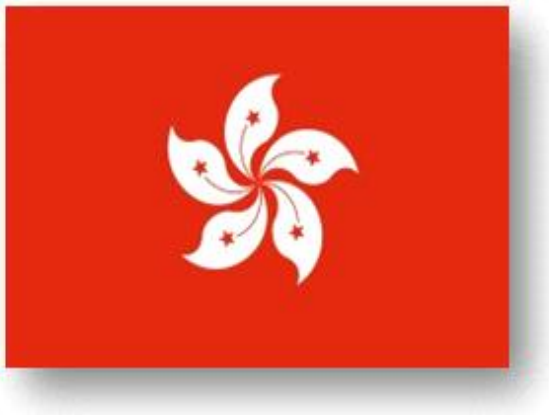
소 속		직 위	성 명	비 고
계			13명	
도의회 (13명)	문화건설안전 위원회 (7명)	위 원 장	정 호 윤	
		부위원장	이 정 린	
		위 원	이 병 도	
		〃	조 동 용	
		〃	김 대 오	
		〃	나 인 권	
		〃	이 한 기	
	전라북도의회 (1명)	부 의 장	한 완 수	
	문화건설안전 전문위원실 (5명)	전문위원	이 덕 주	
		주 무 관	이 현 정	
		주 무 관	이 희 준	
		주 무 관	조 아 형	
		주 무 관	변 혜 진	

제2장 주요 연수 내용

제1절 연수국 현황

1 홍 콩(HONG KONG)

❑ 현 황



<국 기>



<휘 장>

○ 명 칭 : 중화인민공화국 홍콩특별행정구

○ 성 립 : 1997. 7. 1 (홍콩특별행정구 성립일)

○ 면 적 : 1,105.6㎢ (서울 면적 605㎢ 대비 약 1.8배)

○ 정치현황

- 행정 수반 : 캐리 람 (Carrie Lam Cheng Yuet-ngor, 林鄭月娥)

- 정치 체제 : 행정수반책임제(중국과는 1국 2체제의 자치정부 관계)

○ 인 구 : 739만 명 (2017년 기준)

○ 민 족 : 중국인 92.0%, 동남아인 4.6%, 백인 0.8%, 기타 2.6%

○ 언 어 : 광동어(공용어), 영어(통용어), 북경어(상용어)

○ 화 폐 : 홍콩달러(HKD), US$1=약 7.8HKD, 1HKD = 약 142.85원

2 마 카 오(MACAU)

❑ 현 황



<국 기>



<휘 장>

○ 명 칭 : 중화인민공화국 마카오특별행정구

○ 성 립 : 1999. 12. 20 (마카오특별행정구 성립일)

○ 면 적 : 30.5㎢ (서울 면적 605㎢ 대비 약 0.05배)

○ 정치현황

- 행정 수반 : 페르난두 추이(Fernando Chui, 崔世安)

- 정치 체제 : 행정수반책임제(중국과는 1국 2체제의 자치정부 관계)

○ 인 구 : 65만 명 (2016년 기준)

○ 민 족 : 중국인 95.0%, 포르투갈인 2.0%, 기타 3.0%

○ 언 어 : 광동어(공용어), 포르투갈어(통용어)

○ 화 폐 : 파타카(MOP), US$1=약 7.99MOP, 1MOP = 약 139.45원

3 선 전(SHENZHEN)

❑ 현 황



<국 기>



<국 장>

○ 명 칭 : 중화인민공화국 선전시

○ 성 립 : 1980. 8. 26 (경제특구 지정)

○ 면 적 : 1,953㎢ (서울 면적 605㎢ 대비 약 3.23배)

○ 정치현황

- 국가 주석 : 시진핑 (Xi Jinping, 習近平)

- 정치 체제 : 공산당 국가주석제

○ 인 구 : 1,000만 명 (2017년 기준)

○ 언 어 : 광동어(공용어)

○ 화 폐 : 위안(元), US$1=약 6.85元, 1元 = 약 163.52원

제2절 기관 방문

1 마카오 문화국

❑ 방문목적

○ 문화 활동 및 문화 교류 관련 정책 사례 등을 확인하여 전라북도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창작 역량 강화와 향유 기회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문화관광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제안하고자 함

❑ 방문개요

○ 일　　시 : 2018. 12. 16(일) 15:30 ~ 16:30

○ 장　　소 : 마카오 문화국

○ 면 담 자 : 공연 예술 개발부 담당자, Lawrence

○ 내　　용 : 마카오 문화국 현황 청취 및 질의답변 등

※ 방문일자가 주말인 관계로 마카오 문화국 담당자와 면담만 진행(내부시설 시찰 불가)

❑ 주요내용

○ 현　　황

- 마카오 문화국은 1982년에 설립된 정부기관으로 마카오의 문화와 관련된 정책을 수립하고, 각종 문화재의 보호 및 복원과 마카오의 역사적, 건축적, 문화적 유산의 보존, 재생, 보급, 문화유산의 이해와 관련된 리서치, 출판과 간행, 도서관과 아카이브 설립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 또한, 마카오의 전시회, 예술 축제, 국제 음악제, 국제 퍼레이드 및 각종 페스티벌 등과 같은 문화예술 활동 등을 장려 하고 이에 대한 홍보 및 지원도 하고 있다.

○ 조　　직

- 행정조직은 총 24개 부문에 8개 부서와 16개 과로 나뉜다.



<마카오 문화국 조직도>

❑ 질의답변

Q : 마카오의 대표적인 문화재는 무엇이며, 문화재 보호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A : 마카오의 대표적인 문화재는 성바울 성당으로 이는 동양과 서양의 종교와 문화가 혼합된 마카오의 상징적 성당이다. 성 바울 성당은 마카오 초창기 교회이자 예수회 소속 대학으로 천주실의의 저자인 마테오리치가 이 대학 출신이다. 아시아 주변 국가에 파견할 선교사를 양성하기 위해서 1580년에 지어진 이 성당은 1595년과 1601년에 화재로 훼손되었다. 다음 해인 1602년 기초 공사를 시작하여 1637년에 완성하였다. 1834년 마카오 내란으로 예수회가 해체된 후에는 군사 시설로 쓰이다가, 1835년 또 한 번의 화재로 정면만 남기고 허물어졌다. 성당 건물은 폐허가 되었지만 성당 정면이 역사적 가치가 높고 계단에서 바라보는 주변 환경이 아름다워서 관광객이 많이 찾고 있다.

A : 마카오 대표 문화재 보호지역은 마카오 역사지구로서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2005년 등재 되었으며, 우리 문화국 문화유산부서에서 지속적으로 예산을 투입하여 건물에 대한 보수와 복원을 추진하고 있다.

Q : 마카오는 1999년 중국 반환 이전 약 500여년간 포르투갈의 영향을 받았는데 대부분 문화재 등이 서양식으로 마카오 내 지배 전 중국 전통문화나 예술을 보전하고 활용하는 사례가 있는지?

A : 마카오는 포르투갈의 문화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이다. 1553년 이후 포르투갈의 영향을 받으면서 포르투갈의 바로크 양식과 중국의 전통문화가 합쳐졌다. 세나도 광장에 있는 전통건축물들을 보더라도 단순히 중국문화, 포르투갈 문화로 분리해서 설명할 수는 없다. 한마디로 '중국 속 작은 유럽'이란 말이 있듯이 자연스럽게 융화된 문화 예술이 마카오만의 문화적 특징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마카오의 문화 변천사는 문화국 내 마카오 박물관을 방문하면 좀 더 자세히 알 수 있을 것이다.

Q : 문화국에서 문화예술 부분에 대한 지원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A : 문화창조산업진흥부 에서는 2018년 8월경부터 문화창조산업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공공 및 개인의 문화·창조 분야의 정보를 수집 · 교환을 통하여 정부와 개인 간 또는 외국인과 내국인 간 소통을 강화 하고 있다.

또한, 공연 예술 개발부를 통한 공연 예술 개발 정책을 입안하고 예술관리 분야의 지역간부를 양성, 문화예술사업에 대하여 재정을 지원하고 이를 감독하고 있으며, 문화행사를 위한 배정된 공간을 계획하고 개발하고 있다.

특히, 문화센터에서는 공공서비스와 공연 장소를 제공하는 등 공공 및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 시 사 점

○ 마카오의 **대표 관광상품인 카지노와 전통문화자원을 연계**한 관광 프로그램 개발로 하나에 편중되지 않고 **분산·연계하여** 다양한 관광을 즐길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 종교문화자원이자 고대건축양식을 가진 역사건축자원인 성당을 활용하여 **유네스코 등재를 추진**함으로서 국제적인 관광도시에 걸맞게 **국제적으로 인증된 문화관광자원을 보유·소개**하고 있다.

○ 문화관광자원과 함께 인접한 길목에 육포거리라는 **먹거리골목을 형성**하여 관광객들에게 자연스럽게 쇼핑을 유도하고 더불어 지역축제와 행사를 개최하여 **볼거리·먹거리·즐길거리를 동시에 제공**하고 있다.

○ 그밖에 기존 오래된 행정건축물(관공서, 은행, 우체국 등)을 허물거나 방치하지 않고 **독특한 건축양식을 그대로 보존하고 원형을 유지**한 채 리모델링하여 전시관이나 판매장으로 활용함으로서 **마카오 고유의 특색을 느낄 수 있게** 하여 관광객들에게 깊은 인상을 각인시키고 있다.

○ 공공행정차원에서 역사문화자원을 통합관리하고 있어 자원의 관리와 활용이 매우 용이하며, **행정의 주도적 추진으로 보다 안전하고 쉬운 방식으로 역사문화자원이 관광자원으로 빠르게 전환가능**하다.

❑ 방문사진



<마카오 문화국 방문 기념>



<탑섹 광장 견학>

2 선전 전시 · 컨벤션센터

❑ 방문목적

○ 마이스산업 육성과 관련하여 중국 4대 컨벤션센터 중 하나인 선전 전시·컨벤션센터를 방문하여 컨벤션 시설 현황 및 컨벤션뷰로 지원 내용 등을 확인하여 전라북도 전주시 및 전주 완주 혁신도시 일원에 추진 예정인 컨벤션센터 및 컨벤션뷰로 추진 과정의 문제점 및 장단점 현황을 점검 하고자 함

❑ 방문개요

○ 일　　시 : 2018. 12. 17(월) 10:00 ~ 11:30

○ 장　　소 : 선전 전시·컨벤션센터

○ 면 담 자 : 회장 겸 총책임자, Su yan wei 외 3명

○ 내　　용 : 선전 컨벤션·전시센터 현황 청취 및 질의답변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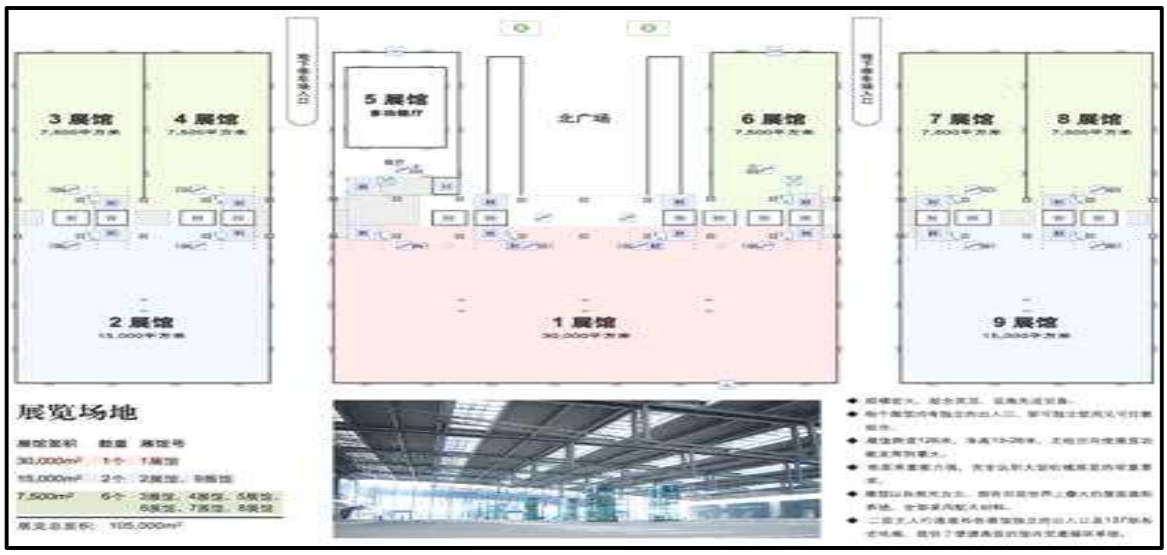
❑ 주요내용

○ 현　　황

- 선전 전시·컨벤션센터는 중국 선전 푸톈 중앙비즈니스 지구에 있는 대규모 공공건물로 2004년에 32억 위안(약 5천2백억원)의 비용을 들여 완공됐다.
- 개관한 이래 약 300회의 전시회와 1,350회 이상의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105,000㎡의 실내 전시장인 'U'형 9개 대형 전시장에는 5,000개의 국제 표준 부스가 설치 가능하다.

○ 구　　조

- 280,000㎡의 면적으로 단일 건물로서는 선전에서 가장 크며, 길이는 540m, 너비는 282m, 건물 높이는 60m, 지상6층, 지하 2층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층	구　역	전시면적(㎡)	비　고
1층	No.1 구역	30,000	
2층	No.2, No.9 구역	15,000	
6층	No.3, No.4, No.5, No.6, No.8구역	7,500	

<선전 컨벤션 · 전시센터 층별 구조>

❑ 질의답변

Q : 선전 컨벤션센터의 운영중인 전시회나 회의 등 MICE산업 관련 연간 개최 횟수와 이용률은 어느정도 인가?

A : 2004년 이후부터 1년 중 약 100여번의 전시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평균 3~4일 내로 1회 전시) 컨벤션을 이용하는 주요 도시와 협약을 맺어 컨벤션을 이용에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한국은 대표적으로 부산과 업무 협약을 맺고 있다. 또한, 선전시의 특수성(청년 스타트업 지원)으로 컨벤션 이용 업체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Q : 선전 컨벤션은 시정부에서 건립한 것으로 아는데 현재 운영은 시정부에서 직접 이루어지는지?

A : 선전 컨벤션은 2004년도에 약 32억 위안의 비용을 투자하여 건립한 건물로서 운영에 있어서는 공사에서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다.

Q : 컨벤션센터의 일자리 규모는 얼마나 되는지? 지역 내 일자리 창출 효과는 어떠한지?

A : 컨벤션센터내 정규 직원은 약 300여명으로 그 밖의 경비, 청소, 자원봉사 등의 업무는 외부업체와 계약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어 정확한 인원 파악은 어려우나, 상당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Q : 컨벤션센터 운영에 있어 애로사항은?

A : 가장 어려운점은 전시회 규모가 커지면서 이를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한 실정으로, 현재 선전 시청에서 국제 컨벤션센터를 추가적으로 건립할 계획이며, 국제 컨벤션센터와 경쟁을 통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중에 있다.

Q : 현재 선전 컨벤션센터가 중국내에서 규모나 활용도 등에서 어느 정도의 위치를 점하고 있는지?

A : 현재 선전컨벤션은 중국 상해, 북경 등에 비하여 면적대지 작은 규모이나 평균 활용도를 따져 봤을 때에는 3위 정도에 해당하며 그 외 서비스 품질 관련은 5위 정도에 해당할 것으로 생각한다.

❑ 시 사 점

○ **선전 컨벤션센터의 성공요인**은 **첫째,** 항공, 철도, 도로 등 **편리한 교통**이 선전지역에 위치해 있어 중국 전체 혹은 해외의 바이어나 소비자, 다른 기업들이 어렵지 않게 선전으로 접근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다.

○ **두 번째로** 선전 컨벤션센터가 위치한 지역 주변과 선전지역에는 굴지의 크고 작은 기업들이 다수 분포하여 끊임없이 기업 간 혹은 기업과 투자자, 기업과 소비자간 교류의 장이 필요한 상황으로 **컨벤션 수요가 충분히 높은 지역에 위치**해 있다는 지리적 이점이 존재 한다.

○ **세 번째** 성공요인으로는 선전지역에 위치한 대다수의 기업들이 창의적이고 새로운 산업의 선도그룹으로서 새로운 산업과 기회를 꿈꾸는 수많은 대내외 관계자들이 선전 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하는 각종 박람회를 참여하고자 하는 점으로 선전 컨벤션센터가 가진 **콘텐츠의 특화**가 성공했음을 증명하고 있다.

○ 전북의 경우 국내 전체 혹은 해외까지 수용할 수 있는 편리한 교통망, 지역의 기반산업과 기업, 창의적이고 특화된 콘텐츠(컨벤션센터 기획 전시 혹은 박람회)가 갖추어져 있을 때 성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컨벤션센터가 성공하고 이것이 지역경제 활성화로 연결되어 서로 시너지를 발생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제반 여건(교통, 기반산업, 콘텐츠)에 대한 준비가 필수적이다.**

❑ 방문사진





<선전 전시 · 컨벤션 운영 상황 및 현황 청취>



<선전 전시 · 컨벤션 운영 상황 및 현황 청취>

❑ 방문사진





<선전 전시 · 컨벤션센터 차(茶) 박람회 현장>



<선전 전시 · 컨벤션센터 방문 기념>

3 한국관광공사 홍콩지사

❑ 방문목적

○ 관광시설 유지관리와 시설보존 등 관광객 유치전략 기술을 습득하고 문화·관광·체육정책 운영상황에 대한 선진사례 연구를 통해 도정 정책에 반영하고자 함

❑ 방문개요

○ 일　　시 : 2018. 12. 17(월) 15:30 ~ 17:30

○ 장　　소 : 한국관광공사 홍콩지사 회의실

○ 면 담 자 : 홍콩관광공사 홍콩지사장, 김관미 외 2명

○ 내　　용 : 도내 해외 관광객 유치전략 방안 모색 및 질의답변 등

❑ 주요내용

○ 현　　황

- 1987년 개소 이래로 사무실 내 관광안내소를 운영을 통한 홍콩 및 마카오 현지인에게 한국의 관광정보를 제공하고 여행상품 및 교통편 예약 등을 통하여 외국인 관광객을 국내에 유치하고 있다.

- 연　　혁

◦ 1987.06.10.　홍콩지사 개설

◦ 1987.10.21.　홍콩지사 등록

◦ 2007.11.09.　코리아플라자 개소

◦ 2015.05.07.　코리아플라자 리뉴얼 개소

- 관할지역

○ 홍　콩 : 홍콩섬, 구룡반도, 신계지, 난타오섬 등 전체

○ 마카오 : 콜로아느섬, 코따이 등 전체

❑ 질의답변

Q : 홍콩에서 한국에 대한 인지도는 어느 정도 인가?

A : 홍콩에서의 한국이란 국가의 인지도는 상당히 높은편에 속한다. 그 이유로는 한류의 영향으로 볼수 있는데 특히, 드라마 대장금의 영향이 커 한국 전통 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또한, 최근 K-POP 열풍으로 인하여 MAMA(M-net Asian Music Award)가 매년 홍콩에서 열리는 등 한국에 대한 관심도는 젊은층 중년층 가릴 것 없이 두루 넓다 할 수 있다.

Q : 전라북도의 방한상품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A : 대표적으로는 전주한옥마을 투어와 봄·가을 벚꽃 및 단풍과 관련된 대표 산악 관광 투어(대둔산, 덕유산, 마이산 등)가 판매되고 있다. 추가적으로 인기 겨울상품인 스키와 관련하여 무주리조트는 회원제로만 운영되어 아쉽게도 관광 상품이 없는 실정이다.

Q : 한국관광공사에서 생각하고 있는 전라북도의 해외관광객 유치에 있어서 문제점과 개선되어야 할 사항은 어떤한 것들이 있는지?

A : 문제점이라고 한다면, 한국행 항공편 189편 중 전라남북도에 인접한 공항의 항공편이 없다는 점이다. 한국에 대한 홍콩의 관심도는 높아지고 있으나 항공편의 부재로 전라북도와 접근성이 많이 떨어져

해외관광객 유치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며, 새만금 국제공항을 신설 등을 통한 해외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노선 등의 개발이 필요하다.

A : 최근 FIT(개별관광객)이 증가함에 따라 수도권 중심의 관광객의 눈을 지방으로 돌릴 수 있도록 전라북도만의 대표 관광지 및 상품의 개발과 지자체별 디테일한 관광인프라(교통안내, 정보, 숙박, 맛집 등)를 구축하여 온라인(SNS를 활용)을 이용한 실시간 홍보가 필요하다. 또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Study tour 프로그램이나 수학여행의 수요가 높아 전라북도와 홍콩 간 학교 교류 여행상품 등을 개발할 수 있도록 여행사와 지자체 간 협력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현재 전라북도 지자체의 최신 사진 및 지도 등 관광 기초자료가 매우 부족한 실정으로, 자료를 찾는 예비 여행객들이 많지만, 자료 제공에 어려움이 있거나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되고 있어 전라북도 내 지자체의 관광홍보 팸플릿, 리플릿 책자 등이 필요하다.

Q : 전라북도에서 개발되었으면 하는 관광상품이 있는지?

A : 현재 전라북도 관광상품들은 지자체가 여행사에 재정적 지원(여행경비 지원 및 각종 서비스 지원 등)을 통하여 해외관광객을 유치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와 반대로 오히려 고가의 고급여행상품들은 매회 품절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것을 보더라도 전라북도 전통문화나 자연경관, 관광자원 등에 대한 럭셔리 상품을 개발하여 해외관광객을 유치하는 방안 등의 검토가 필요하다.

❑ 시 사 점

○ 한국관광공사 홍콩지사를 방문한 결과 주요국가 해외관광객 유치를 위한 **전라북도의 체계적인 관광정책이 부재**한 것으로 판단된다.

○ 특히 해외관광트랜드가 수시로 변화하고 국가별 문화와 국민성이 상이한 만큼 **홍콩 관광객의 니즈(needs)가 무엇인지, 요즘 관심 있는 것은 무엇인지, 홍콩 사람들의 국민성은 어떠한지 등에 대한 심도 있는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이에 맞는 관광상품 개발 및 관광객 유치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 가령, 홍콩사람들은 온돌보다는 침대를 선호, 전통보다는 퓨전을 선호, 사계절이 뚜렷하지 않으므로 눈(snow)테마관광 선호, 나라가 작아 대부분 해외로 수학여행을 가므로 청소년대상 관광상품 필요

○ **전라북도가 적극적으로 해외지사에 관광상품을 먼저 제시**할 때, 지사측에서도 쉽게 전라북도 관광상품을 현지인들에게 소개 가능하므로, 각 국가마다 **전라북도의 관광기초자료(사진, 지도, 맛집 등)의 정기적 업데이트 및 배포**(온라인, 오프라인-팜플렛 우편발송)가 필수적이다.

○ 해외여행객 유치는 **인바운드-아웃바운드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므로, 전라북도에 해외관광객이 들어오는 만큼 전북도민들도 해당 국가로 여행을 가야만 관광상품의 활성화가 가능하므로 **국내여행사-해외현지여행사 간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의 역할**이 요구된다.

❑ 방문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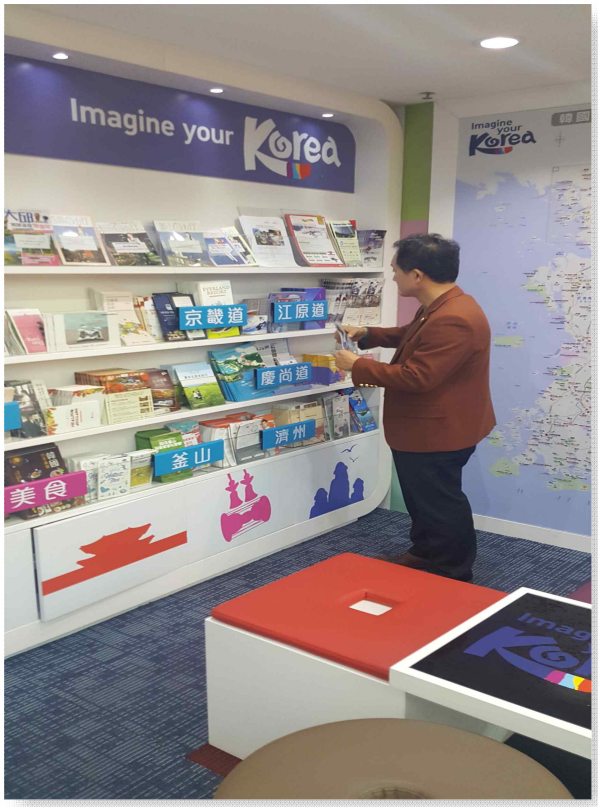


<해외 관광객 유치 현황 청취>



<한국 전통문화 홍보 부스>

❑ 방문사진



<한국 관광지 홍보 부스>



<한국 음식 홍보 부스>



<한국관광공사 홍콩지사 방문 기념>

❑ 추가자료

홍콩 방한관광시장 현황

1 아웃바운드시장 현황

가. 홍콩입출국 통계

년도별	출국자수	증감율 (%)	항공이용 출국자수	증감율 (%)	입국자수	증감율 (%)
2013	84,413,548	-1.0	8,596,408	10.1	54,298,804	11.7
2014	84,519,375	0.1	9,222,535	7.3	60,838,836	12.0
2015	89,082,017	5.4	10,442,907	13.2	59,307,596	-2.5
2016	91,758,331	2.8	11,285,453	8.4	56,654,903	-6.1
2017	91,303,650	-0.5	12,127,560	7.5	58,472,157	3.2

나. 아웃바운드 동향

○ **해외여행이 보편화되어 있는 성숙시장**

- 2017년 항공이용 출국자 수는 전년 대비 7.5% 증가한 12백만명에 이르렀으며, 이는 항공출국자만을 기준으로도 일인당 1.5회 여행을 하는 수준임

  * 비자카드 설문에 따르면 홍콩인들의 평균 휴가일수는 20일로, 그 중 14일간 해외에 머무는 것으로 조사됨

- 다만, 홍콩공항 포화로 항공좌석 추가 확대가 어려워 과거와 같은 높은 수준의 항공편을 이용한 해외출국객 수 증가는 어려울 것으로 보임

<최근 5개년 주요경쟁국 홍콩관광객 증감 현황>

연도	일본	대만	태국	싱가포르	한국
2013년	745,881 (54.9%)	1,105,223 (16.4%)	588,335 (24.2%)	539,810 (14.3%)	400,435 (11.2%)
2014년	925,975 (24.1%)	1,276,039 (15.5%)	483,131 (-17.9%)	631,029 (16.9%)	558,377 (39.4%)
2015년	1,524,292 (64.6%)	1,389,529 (8.9%)	669,617 (38.5%)	609,888 (-3.4%)	523,427 (-6.8%)
2016년	1,839,200 (20.7%)	1,474,521 (6.1%)	749,726 (11.9%)	537,970 (-11.8)	650,676 (24.3%)
2017년	2,231,499 (21.3%)	1,540,765 (4.5%)	820,894 (9.5%)	465,769 (-13.4%)	658,031 (1.1%)

○ **2018년 하반기 경기하락세, 여행수요 영향 우려**

- 중미 무역 분쟁으로 홍콩 수출이 타격받게 됨에 따라 하반기 경기가 하락세를 보임. 업계에서는 경기 둔화가 소비자들의 여행수요에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하고 있음

2 방한관광시장 현황

가. 한국 항공편 현황(편도 기준 작성)

○ **2018년 11월 기준 전 노선 합계 편도 주 230편 운항 중**

- 홍콩→인천 157편, 홍콩→부산 18편, 홍콩→제주 7편, 홍콩→대구 7편
- 마카오→인천 34편, 마카오→부산 7편

지역	항공사명	출발공항	도착공항	운항수/주	주간좌석수	스케쥴
홍콩	캐세이퍼시픽	홍콩	인천	27회	8,823	매일
	대한항공	홍콩	인천	35회	9,723	매일
	아시아나	홍콩	인천	14회	5,513	매일
	홍콩익스프레스	홍콩	인천	18회	3,132	매일
	타이항공	홍콩	인천	7회	2,548	매일
	제주에어	홍콩	인천	14회	2,646	매일
	진에어	홍콩	인천	7회	1,323	매일
	이스타항공	홍콩	인천	7회	1,323	매일
	에어인디아	홍콩	인천	4회	1,024	월,수,금,일
	에디오피아 항공	홍콩	인천	4회	1,080	월,화,목,토
	홍콩에어라인	홍콩	인천	13회	3,705	매일
	에어서울	홍콩	인천	7회	1,246	매일
	케세이드래곤	홍콩	부산	7회	1,018	매일
	홍콩익스프레스	홍콩	부산	4회	696	화,목,토,일
	에어부산	홍콩	부산	7회	1,365	매일
	케세이드래곤	홍콩	제주	2회	316	수,목,토,일
	홍콩익스프레스	홍콩	제주	2회	348	화,목,토,일
	제주에어	홍콩	제주	3회	567	월,목,토
	티웨이항공	홍콩	대구	7회	1,323	매일
	소계			189	47,719	
마카오	에어마카오	마카오	인천	14회	2,492	매일
	진에어	마카오	인천	7회	1,323	매일
	티웨이	마카오	인천	3회	567	수,토,일
	제주에어	마카오	인천	10회	2,079	매일
	에어부산	마카오	부산	7회	1,365	매일
	소계			41	7,826	
합 계				230회/주	55,545	

나. 한국과의 관광교류 통계 [단위: 천명]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홍콩⇒한국	400(11.2%)	558(39.4%)	523(-6.6%)	650(24.3%)	658(1.1%)
한국⇒홍콩	1,084(2.0%)	1,251(15.5%)	1,243(-0.6%)	1,392(12%)	1,487(6.8%)
마카오⇒한국	25(20.3%)	41(59.5%)	33(-18.2%)	51(50.8%)	51(1.6%)
한국⇒마카오	479(6.6%)	555(16.9%)	554(-0.1%)	662(19.5%)	874(32%)

다. 방한상품 취급 여행사 및 주요 상품

○ 총 1,763개 여행사 중 대부분 여행사 한국관광상품 취급

* 소매 여행사를 제외한 한국상품 개발·판매 주요 여행사는 30여개

○ 방한상품취급 주요 여행사로는 Hong Thai, Wing On, Sunflower, EGL, Morning Star, Miramar, Package tours, CTS, Korea Travel Service 등이 있음.

○ 전라북도 관광상품 취급현황

- 동계시즌 스키 상품 개발이 어려워 전북 방문상품이 거의 없는 상황임

* 무주스키리조트가 있으나, 여행사에서 상품개발 시 비협조적으로 판매여행사 없음

- 단, 봄과 가을시즌의 경우, 봄꽃 및 단풍 상품이 다수 개발 판매되고 있음

<2018-2019 겨울시즌 전라북도 방한상품 판매 현황>

여행사명	주요상품	웹사이트주소
Hong Thai	전주 한옥마을 1일투어(HK$699)	http://www.hongthai.com/tc/tour/details.html?code=SOB01-X1D
Kuoni	서울-강원홍천-전북(대둔산, 덕유산, 진안홍삼스파, 전주한옥마을) 5일 상품	http://me2.do/FtgnpMZw

라. 방한관광 동향

<연도별, 월별 방한 홍콩관광객 현황>

(단위 : 명)

구분	'14년	'15년	'16년	'17년	'18	'18/'17 증감(%)	비 고
1월	35,077	35,407	33,627	55,524	34,671	-38.9	
2월	35,881	50,992	49,160	36,845	50,590	37.3	
3월	35,208	51,876	62,949	47,834	62,340	30.3	
4월	55,795	67,465	52,699	79,067	66,533	-15.9	
5월	47,064	54,095	52,006	51,875	57,320	10.5	
6월	54,884	13,950	62,492	58,590	66,136	12.9	
7월	48,766	7,761	58,500	57,005	58,373	1.3	
8월	51,502	33,752	55,800	59,259	63,397	7.0	
9월	40,614	52,400	42,212	45,023	49,649	10.3	
10월	52,371	53,648	66,500	54,962	61,473	11.8	
11월	47,062	47,329	53,406	53.,286	54,000	1.3	
12월	54,153	54,753	63,336	58,761			
계	558,380	523,427	650,676	658,031	624,482	4.2%	

* 전년대비 연도별 성장률 '15년 -6.8%↓, '16년 24.3%↑, 17년 1.1%↑, 18년(1-11월) 4.2%↑

○ **개별관광객 비중 지속 증가**

- 저가항공사 운항 확대에 따라 젊은 FIT가 방한시장을 주도하고 있으며, 재방문객 비중 큰 폭으로 증가

  * 2015년 FIT&에어텔 비중 81.9% / 2회 이상 방한 비율 2014년 39%→2015년 59%

  * (2013년) 이스타젯 신규취항, (2014년) 제주에어 증편, 홍콩익스프레스 증편 및 제주 신규 취항, (2016년) 홍콩에어라인 및 티웨이 항공 신규 취항 (2017년) 에어서울 신규 취항

○ **수도권 위주 관광에서 지방관광 증가 추세**

- 항공사 지방공항 취항 확대 및 지자체 공동 지방관광캠페인 지속 전개로 재방문객 중심 지방관광 수요 증가

  * 지방공항 취항 항공사 (2010년) 2개사 주 21편 → (2018.9) 6개사 주 43편

○ **'17년 홍콩 방한객 65.8만명, 전년대비 1.1% 성장에 그침**

- 9월말부터 이어진 한국 장기연휴, 일본 엔화 약세 지속 및 동계시즌 강원지역 객실확보 어려움 등으로 10월 이후 방한관광 수요 감소 추세로 전환

  * (9월) 6.7% → (10월) -12.7% → (11월) -0.2% → (12월) -8.2%

○ **'18년 1~11월 홍콩 방한객 전년대비 4.2% 증가한 62.4만명 달성**

- 상반기 홍콩 경기 호조 영향으로 아웃바운드 시장 전반 성장

  * (1월) -37.6% (2월) 37.3% (3월) 30.3% (4월) -15.9% (5월) 10.5% (6월) 2.4% (7월) 2.4% (8월) 7.0% (9월) 10.3% (10월) 11.8% (11월) 1.1%

- 가을 단풍 및 겨울 스키관광객의 방한수요 확대로 연간 5% 내외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

4 2018년 홍콩지사 주요사업

가. FIT 대상 홍보 및 유치 마케팅 강화

○ FIT 지방 관광 유치 캠페인 추진(4.20~6.30 / 5,136명 모객)

- 지자체·업계 공동 'Korea Freestyle Jetso 1+1' FIT 캠페인 전개

  * 지자체 및 국내기관(9개), 항공사(11개), 여행사(24개) 등 총 44개 기관 참가

  * 5.1~9.20 기간 출발하는 FIT 방한 항공티켓(에어텔) 및 지방 데이투어 상품 구매 홍콩·마카오 관광객 대상 트래블키트 제공

* 데이투어 상품·방한 항공권 가격할인 및 경품 추첨 이벤트 개최

- 홍콩 유명 유투버 'Mira' 공동 데이투어 상품 체험 영상 제작·홍보

* 홍콩 유투버 'Mira' : 유투브 구독자 50만명을 보유한 한국 여행 인기 유투버

- FIT 지방관광 캠페인 온오프라인 특별광고 및 쇼핑몰 로드쇼 이벤트 개최



○ 온라인 채널 활용 방한 관광정보 제공 및 홍보 판촉 강화

- 지사 운영 마이크로 사이트 '친구코리아' 및 페이스북 활용 실시간 방한관광 정보 및 유관기관 연계 온라인 홍보 이벤트 추진

- 홍콩 SNS 서포터즈 'Korea Travel Leader(韓遊團長)' 확대 운영을 통한 FIT 관광객 타깃 바이럴 마케팅 추진('18년 홍콩 SNS 파워유저 30명 임명)

○ 홍콩 여행사 공동 FIT 상품 개발 및 특별 모객 프로모션 추진

- 신규 방한 에어텔 및 데이투어 상품 개발 및 모객광고 집중 전개

나. 지자체, 업계 공동 계절테마 지방관광 캠페인 전개

○ (시기) 봄꽃(2~4월), 여름 가족(5~8월), 가을 단풍(8~10월), 겨울 스키(11~2월)

○ 공동 참여기관

- (지자체) 캠페인 광고 예산부담, 테마관광코스 및 상품구매자 기념품 제공

* 봄(경기, 부산), 여름(경상권 5개 지자체), 가을(경기, 전남, 제주), 겨울(강원, 경기)

- (여행사) 각 계절 테마별 지방관광 특화상품 개발/판촉

- (항공사) 온오프라인 소비자 이벤트 경품 지원 등

○ 주요내용

- 현지 여행사, 언론매체 대상 계절 캠페인 설명회 개최

- 참여 지자체 공동 계절 캠페인 특별광고 및 온오프라인 이벤트 실시

- 여행사 공동 계절 특화 지방관광상품 개발 및 공동 모객광고 추진

다. 고부가 럭셔리 테마상품 개발

○ 현지 여행사 공동 서울 초고가 호텔 체험 럭셔리 FIT 상품 개발

- 럭셔리 호텔(반얀트리, 포시즌, 시그니엘), 비즈니스 좌석 연계 상품(150만원대) **210명 모객**

○ 미쉐린 레스토랑 전용 초고가 미식 SIT 상품 개발

- 미쉐린 스타 레스토랑 상품(320만원대) 및 빕구르망 상품(110만원) **152명 모객**

○ 홍콩 젊은층 타깃 K-POP 댄스 체험 고부가 SIT 상품 개발

- 파주 한류트레이닝센터 한류 테마 K-POP, 한글 체험 상품(130만원) **62명 모객**

라. MICE 및 스터디 투어 관광객 유치 확대

○ 관계자 네트워킹 강화를 통한 대형 기업회의 및 인센티브 단체 유치 확대

- 홍콩 기업 및 여행업계 대상 MICE 로드쇼 행사 개최(4.17)

  * 지방컨벤션뷰로, PCO 등 국내참가자 및 홍콩 기업체, 여행사 등 총 150명 참가

- JW메리어트 공동 기업고객 대상 팸투어 추진(5.16-19, 10명)
- 현지 MICE 관계자 대상 분기별 e-뉴스레터 발송
- 2019년 4월 2,000명 규모의 대형단체(프루덴셜 홍콩) 유치 확정
- 12월 현재 전년대비 76% 증가한 3,308명 인센티브 단체 유치

○ 청소년/수학여행 등 스터디 투어 홍보 및 판촉 강화

- 홍콩 스터디투어 시장분석 및 유치전략 수립을 위한 설문조사 실시(3월)
- 홍콩 교장단 및 교육협회 연계 한국 스터디투어 설명회 개최(5.10, 50명)
- 방한 스터디투어 확대 및 목적지 다양화를 위한 교장단 방한 팸투어 2회 추진 (5.26~29, 부산 및 울산, 31명/ 10.13-17, 서울 및 인천, 19명)

마. 대형 이벤트 행사 연계 한국관광 인지도 제고

○ 국내 지자체 및 관광업계 공동 홍콩국제관광박람회(ITE) 참가(6.14~17)

- 41개 국내 업체 참가, B2B 트래블마트 개최 및 한국관 운영

○ 한국문화관광대전 'K-Winter Travel Fest' 개최(10.26-28)

- 44개 국내외 업체 참가, B2B 트래블마트 개최 및 쇼핑몰 부스(30개) 운영
- 한류스타 초청 개막식 및 이벤트 개최, 동계관광상품 판매
- 주요행사

일자	행사내용	장소
10.26(금) 11:00~14:00	한-홍 업계간 트래블마트 및 동계 테마 방한관광설명회 개최	호텔
10.27(토)-28(일) 12:00~20:00	한류 스타 초청 이벤트 개최 스키 및 동계 관광지 테마 B2C 행사 한국 문화 관광 콘텐츠 체험 및 홍보	Hollywood Plaza

4 PMQ(元創方)

❑ 방문목적

○ 도시개발의 주도적 패러다임이 될 도시재생의 선진 사례 접목을 통한 전라북도의 주거환경·문화·경제 등과 조화를 모색하고, 도민과 이해관계자들에게 도시재생 취지 이해시키고, 현지 주민의 주도적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 하고자 함

❑ 방문개요

○ 일　　시 : 2018. 12. 18(화) 15:00 ~ 17:00

○ 장　　소 : PMQ

○ 면 담 자 : PMQ 총책임자, Andrew LEUNG 외 2명

○ 내　　용 : 도시재생 우수사례 및 운영 실태 점검, 질의답변 등

❑ 주요내용

○ 현　　황

- 1862년 고흐 스트리트에 설립된 중앙서원으로서 홍콩 최초로 서양식 교육을 실시한 공립 초중등학교로 제2차 세계대전으로 인해 심각하게 파손된 서원을 1951년에 처음으로 하위직 경찰을 위한 기혼자 숙소로 사용되었으며 PMQ(Police Married Quarters)라는 명칭을 사용하였다.
- 2000년부터 비어있던 건물을 홍콩정부는 2010년 11월 홍콩의 창조

적인 문화를 발전시키고 독창적인 문화 예술 공간을 만들기 위해 건물을 개조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문화재를 보존하기 위해 건축물 설계 원형을 유지하도록 하였다.

- 현재는 홍콩의 창의적, 창조적 산업의 아이콘으로 부상하고 있다.

○ 구　　조

- 총 면적 18,000㎡, 지상 7층 지하 1층 구조이다.



<PMQ 전경>

❑ 질의답변

Q : PMQ 정부의 지원으로 시설이 개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설 운영도 정부에서 하고 있는지?

A : 2010년 정부의 지원으로 시설개량을 통하여 100여개의 디자인 및 크리에티브 기업 등이 입주해 있는데, 현재는 정부로부터 운영 및 관리를 위탁 받아 자체적으로 자급자족하고 있다.

Q : 현재 입주해 있는 기업의 수익금만으로는 운영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 자급자족의 의미는 무엇인가?

A : 실제로 입주하고 있는 기업의 일부 수익금으로 시설 운영비를 충당하기는 어려우며, 자선단체 등에서 예산(약 매년 150억원 정도)을 지원 및 후원받아 운영하고 있다. 또한, 기업에서 발생한 수익금과 지원받는 예산들은 시설의 활성화 차원에서 재투자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하고 있다.

Q : 시설 내 입주 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A : 입주조건(디자인 및 마케팅 능력평가, 상품제작 경제력 평가 등)에 대한 평가를 한 후에 입주가 결정되며 이 조건은, 입주하고자 하는 기업의 당장의 수익 목적보다는 향후 미래적 발전 가능성을 우선순위에 두고 입주 심사를 거치며, 2년 단위로 평가하여 재계약 및 퇴거를 결정하고 있다.

Q : PMQ가 도시재생의 대표적 성공사례로 주목받는 데는 어떠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는지?

A : 현재 대부분의 도시재생은 건축물 및 문화재와 같은 근대 건축자산을 활용하여 관광의 목적을 두고 개발하는 사례들이 많으나, PMQ의 경우에는 지역 대학-기업-지자체가 연계하여 청년들의 스타트업을 지원하여, 지역인재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별적인 도시재생사업이라고 생각한다.

Q : 도시재생 주민참여 유도를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였는지?

A : 정부가 주도적으로 역사적 건물 재활성화 프로젝트를 통하여 PMQ를 개량한 것은 맞지만, 이후 비영리기관으로서 주민이 원하는 방향의 주민-기업-대학 간 연계를 통해 자발적으로 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하였으며, 결과적으로 창업을 지원하고, 관광객을 유치하는 등 주민의 수익 창출에도 크게 기여하게 되었다.

❑ 시 사 점

○ PMQ는 전체적인 운영을 맡고 있는 ①**민간비영리단체(PMQ MANAGEMENT)**와 민간자본을 모으고 관리하는 ②**민간재단(Musketeers Foundation)**, 그리고 콘텐츠와 디자인 전문인력을 공급하는 ③**공동합작기관(Hong Kong Design Centre, Hong Kong Polytechnic University, Hong Kong Design Institute)**이 있었기에 성공했던 프로젝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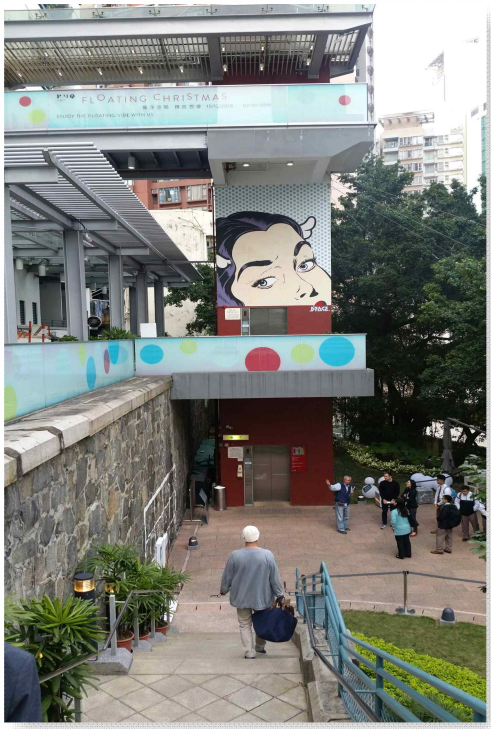
○ 덧붙여 PMQ는 홍콩 내 기업 등 민간기관과 국민들이 지역의 청년들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는 활동들을 적극적으로 하고자 하는 국민성이 뒷받침**되어 많은 자본(기부금)과 인력의 제공이 가능했다.

○ 공공건축물의 활용보다 더 중요한 것은 **콘텐츠와 운영방식, 사회적 역할 수행**(일자리 창출, 지역사회 발전기여 등)이며,

○ 또한 공공건축물 활용 시 **그 건물의 역사(시작~리모델링)를 기록**하고 그것을 그대로 전시하고 있다는 점(기숙사 한 실을 그대로 복원・전시하고 있으며 별도 역사관을 설치함)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 방문사진





<시설 안내 및 도시재생 사례 청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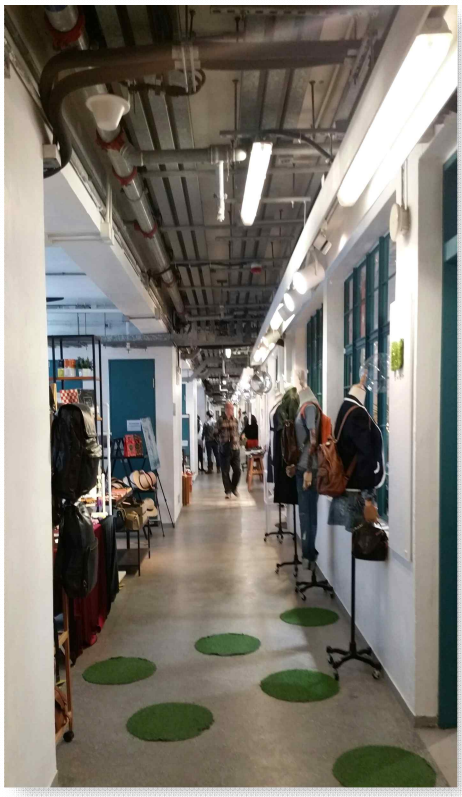


<PMQ 방문 기념>

❑ 방문사진



<입주기업 현황 청취>





<입주기업 현황 청취>

제3절 기관 시찰 및 현장 견학

1 핑산 헤리티지 트레일

❑ 방문목적

○ 국내·외 관광객에게 인기 높은 대표관광지인 홍콩 핑산 헤리티지 트레일 등을 방문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는 선진 외국을 벤치마킹하여 전통문화자원을 활용한 민선7기 관광 정책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연수기회가 되고자 함

❑ 방문개요

○ 일　　시 : 2018. 12. 15(토) 10:00 ~ 11:30

○ 장　　소 : 핑산 헤리티지 트레일

○ 내　　용 : 전통문화유산 활성화 및 활용 현황 점검 등

❑ 주요내용

○ 현　　황

- 핑산 헤리티지 트레일은 마을 3곳과 옛 사원들, 사당들, 성곽마을을 지나는 코스로, 이곳에서 원나라(1271-1368) 후반 이래 당족으로 인해 인구가 늘어나기 시작한 홍콩 역사의 한 장을 살펴볼 수 있다. 출발점은 홍콩에서 가장 오래된 탑인 츄싱라우 탑(1486년~)이다. 이 탑은 13m 높이 3층 규모로 탑 맨 위층에는 시험의 당락을 담당하는 신인 퓨싱이 모셔져 있다. 또한 각 층에는 성스러운

중국의 명언들이 적혀 있다. 핑산 헤리티지 트레일의 이정표를 따라 땅의신 사당, 셩청와이, 영하우 사원, 탕 사당, 유큐 사당, 쿤팅 서당, 칭수힌, 홍싱 사원 등을 탐방할 수 있다. 이후 탐방로를 따라 홍싱사원 다음 마지막 코스로 향하거나 헤리티지 트레일 비지터 센터(핑산 탕 클랜 갤러리)를 방문할 수 있다. 비지터 센터는 옛 핑산 경찰서 건물 안에 자리하고 있는데 이곳에서는 당씨족과 핑산 헤리티지 트레일의 유적지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다.

❑ 시 사 점

○ 핑산 헤리티지 트레일은 중국의 전통 문화유산을 연계하여 구축한 탐방로로 도심 가운데 위치하고 있으며, 홍콩의 전통 건축물(사당, 사원)을 관람하고, 초기 씨족 정착민들의 삶을 들여다 볼 수 있다.

○ 홍콩 문화유산의 발자취를 따라갈 수 있는 탐방로 구성은 우수하다고 할 수 있으나, 도심한가운데 위치하여 옛 건축물과 주변 경관이 조화롭지 못한점은 아쉽다.

○ 전라북도도 동부권 6개 시·군에는 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의 전통문화유산이 보전되어 있으며, 산악지대의 지리적 특수성으로 인한 수려한 자연경관도 가지고 있다. 최근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산림문화관광 콘텐츠의 개발과 전라북도가 휴양 힐링 거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동부권 6개 시·군만의 특화된 사업 발굴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방문사진





<현장시찰 및 견학>



<핑산 헤리티지 트레일 방문 기념>

2 란타우 비지터 센터 & 강주아오 대교

❑ 방문목적

○ 홍콩의 각 섬을 연결하고 있는 교량 중 2개의 대표 교량의 점검을 통한 부안과 고창을 잇는 부창대교 건립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 홍콩과 마카오를 잇는 세계에서 가장 긴 교량인 강주아도 대교를 눈으로 직접 보고 실제 교량을 이동하면서 국내 이와 유사한 충남 보령~태안 해상교량과 비교하는 등 우수사례를 배우고자 함

❑ 방문개요

❑ 란타우 비지터 센터

○ 일　　시 : 2018. 12. 15(토) 13:30 ~ 14:30

○ 장　　소 : 란타우 비지터 센터

○ 내　　용 : 홍콩의 대표 교량인 칭마대교 및 팅카우 대교 점검

❑ 강주아오 대교

○ 일　　시 : 2018. 12. 16(일) 10:00 ~ 11:00

○ 장　　소 : 강주아오 대교(Zhuhai-Macau Bridge)

○ 내　　용 : 세계 최장 교량 점검

❑ 주요내용

○ 현　　황

- 칭마대교(Tsing Ma Bridge)는 란타오섬과 구룡반도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 작은 두 섬인 청의도와 마완도를 연결하는 다리로서 세계에서 열한 번째로 긴 현수교이다. 양 교각사이 상판 길이가 1천 3백77m이며, 복층 상판으로 만들어져 상층이 6차로 차도이고 하층은 왕복 2개 레인의 철도와 또 다른 2개로의 차도가 마련되어 있다. 모두 9억1천만 달러(약 1조7천억원)가 투입된 이 다리는 206m 높이의 대형 콘크리트 타워에 다리 상판이 해면에서 62m 높이로 떠있다.
- 팅카우대교(Ting Kau Bridge)는 칭 이섬 (Shing Yi Island)과 투엔 문로드(Tuen Mun Road)의 북서쪽을 연결하는 교량으로 길이가 1,177m에 달하는 홍콩의 대표적인 사장교이다. 칭마대교 근처에 위치하고 있으며 란타우 섬의 홍콩 국제 공항과 홍콩의 주요지역을 연결하는 연결고리 역할을 하고 있다. 1998년 5월 5일에 완공되었으며, 약 19억 4천만 홍콩달러(2천8백억원)가 투입되었다.
- 강주아오 대교는 홍콩과 마카오, 중국 광둥성(廣東省) 주하이(珠海)를 연결하는 세계 최장의 해상대교이다. 양방향 6차선 도로로 전체 길이는 55km에 달하며 너비는 33.1m, 높이는 5.1m 규모이다. 2009년 12월 15일 착공하여 2018년 10월 23일 개통식이 열렸고 24일부터 공식 개통됐다. 교통 혼잡을 막기 위해 홍콩과 마카오 차량 1만 대, 중국 본토 차량 1000대 등 총 1만 1000대로 통행 차량을 제한한다. 대신 시민들이나 여행객들은 24시간 운영하는 HZM 버스(셔틀버스, 유료)를 타고 홍콩이나 마카오 국경 간을 오갈 수 있다.

- 강주아오 대교는 대형 선박들이 지나갈 수 있도록 다리 가운데 길이 6.7km의 해저터널로 연결돼 있어, 대교를 통해 이동하다 해저터널 양측의 인공 섬에서 해저터널로 진입해 건너가야 한다. 120년 동안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됐으며 16급 태풍(초속 56.1m), 규모 8.0의 지진을 견딜 수 있다.

❑ 시 사 점

○ 홍콩은 반도와 섬을 교량으로 연결하여 교통 물류의 발전으로 세계 물류의 중심지가 되었다. 또한, 최근 홍콩과 마카오간 강주아오대교의 건립 역시 중국이 금융, 경제, 산업, 관광 등을 지리적·경제적 통합을 통해 세계경제 주도국으로 나아가고자 하기 위함일 것이다.

○ 전라북도도 고군산군도(신시도, 무녀도, 선유도, 장자도)를 잇는 국도가 최근 개통되었으며, 각각의 섬을 교량으로 연결하여 교통의 편의성을 증대시켜 고군산군도를 찾는 관광객은 매년 증가 추세에 있다.

○ 반면, 새만금 사업과의 연계를 위한 고창과 부안을 잇는 부창대교 건립은 국가계획에 반영조차 되지 않고 있어, 전라북도 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 서해안 고속도로에 치중된 교통과 지역 편중되어 있는 관광객들의 분산, 서해안 관광벨트 연계를 위해서라도 부창대교 건립은 반드시 필요하다.

❑ 방문사진



<란타우 비지터 센터 시설 점검 및 교량 현황 청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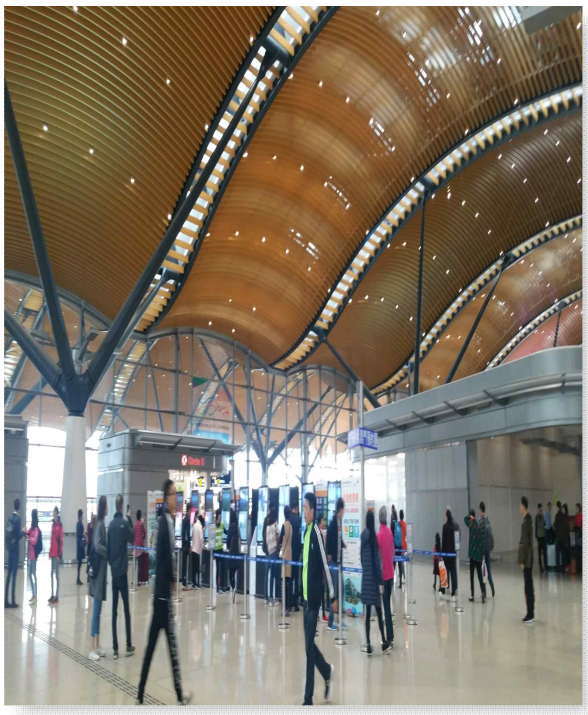


<란타우 비지터 센터 방문 기념>

❑ 방문사진



<강주아오 대교 전경>



<강주아오 대교 홍콩 출입국 관리소>



<강주아오 대교 마카오 출입국 관리소>

3 마카오 세계문화역사지구

❑ 방문목적

○ 마카오의 대표적인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세계문화역사지구를 방문하여 전라북도의 익산의 백제역사유적지구와 유사점 및 차별성을 찾는 등 우수 사례를 배우고자 함

❑ 방문개요

○ 일　　시 : 2018. 12. 16(일) 13:00 ~ 15:00

○ 장　　소 : 마카오 세계문화역사지구

○ 내　　용 : 유네스코 등재 문화유산지구 시찰 및 현장 점검 등

❑ 주요내용

○ 현　　황

- 마카오 역사지구는 16세기부터 약 450년 동안 지속된 서양 문물과 중국 전통문화 교류의 흔적이 보존된 지역이다. 2005년 7월에는 동서양의 문화가 공존하는 역사적 가치를 인정받아 이곳에 자리한 유서 깊은 건축물 22개와 광장 8개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다.
- 마카오 역사지구는 고색창연한 유럽풍 건축물들과 중국의 중세 풍경이 어우러져 독특한 정취를 물씬 풍긴다. 세나도 광장(Senado Square)은 마카오에서 가장 번화한 곳이다. 돌바닥이 깔린 광장을 중심으로 자비의 성채, 자애당, 릴 세나도 빌딩 등 역사적 건축물들이 자리한다.

-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건물 중에서도 첫째로 꼽히는 곳은 성 바울 성당(St. Paul's Cathedral)이다. 현재 건물의 앞쪽 벽면만 남아 있고 나머지는 소실된 상태다. 성 바울 성당 근처에는 과거 마카오를 방어하기 위해 대포를 배치했던 몬테 요새(Monte Fortress)가 자리한다.
- 그 밖에도 마카오의 가장 높은 곳에 자리 잡은 '기아 요새', 콜로니얼풍의 바로크 양식이 시선을 사로잡는 '성 도미니크 성당', 파스텔 톤의 우아한 인테리어가 특징인 '성 로렌스 성당', 화려한 문양이 새겨진 돌바닥이 인상적인 '성 아우구스틴 광장', 18세기 무역 상인의 저택으로 동서양 건축 양식이 융합된 '로우 카우 맨션', 마카오에서 가장 오래된 사원인 '아마 사원' 등이 유명하다.

❑ 시 사 점

○ 마카오 세계문화유산과 더불어 2015년 전라북도 익산, 충청남도 공주, 부여의 유적지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 되었다.

- **(익산)**왕궁리 유적, 미륵사지, **(공주)**공산성, 송산리고분군
  (부여)관북리유적과 부소산성, 능산리 고분군, 정림사지, 나성

○ 현재 마카오와 유사한 문화유산과 연계한 관광 상품을 각 지자체별 별도의 시티투어 개념으로 운영하고는 있으나, 전북도-충남도 간 광역단위의 연계 관광 상품은 부재한 상황으로 광역단체 간 긴밀한 협조를 통해 700년 역사의 백제를 세계적으로 알릴 수 있도록 익산-공주-부여를 연계한 통합 관광 상품의 개발이 필요하다.

❑ 방문사진





<현장시찰 및 견학>



<마카오 세계문화역사지구 방문 기념>

❑ 방문사진





<세계문화역사지구, 마카오 자애당>



<세계문화역사지구, 마카오 민정총서>

4 콰이청 컨테이너항 & IFC 빌딩 & 홍콩상하이 은행

❑ 방문목적

○ 문화건설안전 위원회 소관 업무와 관련된 유명 항구 및 건축물(랜드마크) 등을 시찰하고 전라북도와 규모 형식 등을 비교 분석하기 위함

❑ 방문개요

○ 일　　시 : 2018. 12. 15(토) 16:30, 2018. 12. 18(화) 10:00

○ 장　　소 : 콰이청 컨테이너항, IFC 빌딩, 홍콩 상하이은행

○ 내　　용 : 동아시아 최대의 항구 및 홍콩의 랜드마크 건축물 시찰

❑ 주요내용

○ 현　　황

- 콰이청 컨테이너항은 9개의 컨테이너 전용 터미널을 보유한 동아시아 최대의 항구 중의 한 곳이다. 콰이청(Kwai Chung) 터미널은 면적이 53㎢, 총 9개 터미널에 24개의 선석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홍콩항에서 취급하는 물류의 약 60%의 물량을 처리한다.
- IFC몰(빌딩)은 면적 74,000㎡에 One IFC와 Two IFC 두 건물로 나뉘어져 있으며, IFC몰 2층에는 두 타워 간 연결된 입구가 있다. One IFC 빌딩은 높이 210m, 39층으로 1993년 완공되었다. Two IFC라 불리는 제2국제 금융센터는 2003년 완공되었으며 높이 420m, 88층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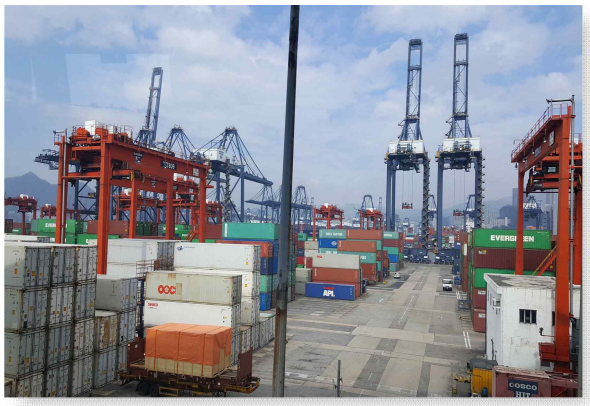
- 홍콩상하이은행(HSBC)은 홍콩 대표 금융기관으로 본사 건물은 완공까지 6년이 소요되었으며, 1985년 준공 당시 건축비가 10억 달러(1조 1천억원)로 세계에서 가장 비싼 건물로 꼽혔다. 바다게 모습을 본뜬 독특한 외관과 누구나 드나들 수 있는 개방형 로비가 특징이다. 영국의 건축가 노만 포스터 경(sir Norman Foster)이 디자인했다.

❑ 시 사 점

○ 전라북도 대표관광지는 단연 한옥마을 이다. 하지만, 전라북도를 대표하는 건축물은 떠오르는 것이 없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어떠한 지역이나 장소를 떠올릴 때 쓰는 것이 건축물이며 이것이 곧 그 지역을 각인시키고 상징하는 랜드마크가 된다.

○ 전세계적으로 국력과 경제력을 과시하기 위해 앞다퉈 초고층 빌딩을 건설중에 있다. 이제는 전라북도도 전라북도를 찾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대표건축물(랜드마크)을 건설할 필요가 있다.

❑ 방문사진



<콰이청 컨테이너항>



<IFC 빌딩 방문 기념>

제3장 선진지 벤치마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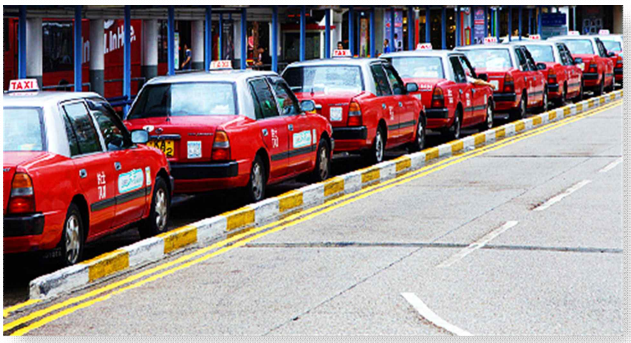
1 관 광

○ 홍콩은 재정과 금융 분야에서의 영향력이 점점 커지면서 국제교역 및 국제금융업무 중심의 자유지역이며, 특히 관광, 휴양, 레저 중심의 관광 휴양도시에 첨단지식산업, 물류, 금융을 결합시킨 복합형 국제자유도시를 지향하는 명실상부 국제무역도시의 메카로 명성을 얻고 있다.

○ 지하철인 MTR, 홍콩의 명물인 2층버스, 트램, 스타페리 등 육로, 해상을 가릴 것 없이 편리한 교통 시스템으로 홍콩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으며, 홍콩에서 전세계의 각종 먹거리를 맛볼 수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동서양의 관광객들이 음식을 맛보기 위하여 홍콩을 찾고 있다.

○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는 도시가 홍콩이며, 이러한 홍콩을 대표하는 야경은 특히 아름답다 할 수 있을 정도로, 이를 감상하기 위해 관광객들은 홍콩의 각종 명소를 찾아오고 있다. 또한, 각종 물류의 집합소로서 쇼핑의 천국이라고 불리는 홍콩은 각종 최신 트렌드 상품이 먼저 출시되는 장소이기도 하다.

○ 홍콩은 화산활동으로 이루어진 섬으로 좁은 영토와 천연자원 부족하다는 점, 높은 인구밀도 등이 우리나라와 공통점이 많아 홍콩의 관광정책은 받아들일 수 있을 만한 선진사례로 보여지며, 현재 개발중인 새만금지역에 접목시킬 수 있는 좋은 모범사례가 될 것이다.



<택시>



<2층 버스>



<트램>



<페리>





<홍콩 쇼핑센터 및 야시장>



<홍콩 야경>

※ 사진출처 : 홍콩관광청(http://www.discoverhongkong.com/kr/about-hktb/index.jsp)

2 문화유산 보전 및 복원

○ 마카오는 포르투갈의 지배를 받아오다가 1999년 12월 20일 중국으로 반환되었으며, 포르투갈과 중국의 문화가 서로 결합된 문화유산이 많이 보전되어 있는 도시이다.

○ 양국의 문화가 결합된 독특한 문화재를 적극 활용하기 위해 문화국을 통한 문화재 보전 및 복원 등을 통하여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마카오를 대표하는 카지노와 연계한 관광상품을 개발하는 등 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한 적극적인 정책을 통해 관광객들의 발걸음을 유도하고 있다.

○ 유네스코에 지정된 백제역사유적지구의 복원과 향후 나아가야할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우수 사례로 보여진다.



<세나두 광장>



<성 아우구스티노 성당>



<성바울 성당>

※ 사진출처 : 마카오정부관광청(http://kr.macaotourism.gov.mo/index.php)

3 MICE 산업 육성

○ 21세기의 고부가가치 사업으로 떠오르는 마이스 산업은 청년일자리 창출과 회의, 전시회 등 개최지역의 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이 점점 커지고 있다.

○ 특히, 중국 선전은 경제특구로 지정되어 청년 스타트 업 붐이 일고 있는 대표적인 도시로서 중국 정부의 적극적인 투자와 지원으로 전세계의 창업자들이 모일 수 있도록 환경이 갖추어 졌으며, 이로 인한 컨벤션 수요가 끊이지 않는 도시가 되었다.

○ 중국 선전은 현재 걸음마 단계인 전라북도 마이스 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선진 모델이 될 것이다.



<선전 전시 · 컨벤션 센터 조형도>

4 저상버스 등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 홍콩정부는 장애인들이 지역사회로 통합할 수 있도록 교통을 비롯한 공공서비스와 도시디자인 전반에 '장애물 없는 환경디자인(barrier free)'를 도입한다.

○ 홍콩은 대중교통분야에 있어 2013년까지 '통합 안내시스템'(시각·청각·지체장애인 등 모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버스승하차정보안내시스템)을 완성하고, 2017년까지 란타우섬 일부 언덕길을 제외한 모든 홍콩 시내버스를 저상버스로 운행하겠다는 정부 발표가 있었다고 한다.

○ 홍콩에 저상버스를 최초로 도입한 것은 1997년(KMB라는 민간버스회사)이었고 그로부터 20여년이 지난 현재 홍콩 대부분은 장애인, 어르신, 어린이 등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버스로 바뀌었다.

○ 특히 주말이면 휠체어 이용 장애인들이 단체로 시내관광을 즐기기도 한다고 하니 버스는 물론 보도나 교량(육교) 설계 시에도 모두를 위한 디자인 개념이 보편화되어 있었다.

○ 실제로 경험한 홍콩의 대부분의 버스는 저상버스로, 휠체어 및 유모차 이용이 편리하였으며, 보행기를 사용하는 노인들도 쉽게 접근 가능했다.

○ 홍콩 시내 거리에 많은 육교들 또는 대형건물의 계단의 경우 대부분 계단과 함께 경사로나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여 계단 오르기가 힘든 노약자(홍콩은 장수국가), 휠체어 및 유모차 이용자들에게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 그러나 홍콩역시 아직까지 각종 설계나 디자인 상 휠체어 이용자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는 데는 불편함이 있어 지속적으로 장애인 협회, 시민단체, 사회적 기업 등이 정부나 업체를 상대로 정책제안과 모니터링을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

○ 전라북도의 경우, 저상버스(시내버스만, 시외버스는 없음) 도입률은 '제3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법정계획)'상 광역도 단위 도입목표 32%에도 못 미치는 18.6%에 불과한 실정이다.(홍콩 저상버스 도입률 100%)

○ 심지어 도내 14개 시·군 중 저상버스를 운영하고 있는 곳은 단 3개 시 지역(전주, 군산, 익산)에 불과하며 나머지 11개 시군의 경우 저상버스가 단 한 대도 없는 심각한 실정이다.

○ 한국의 경우 2000년대 초반 경 저상버스가 일부 지자체에서 시범 운영 되기 시작하여 아직까지도 필요성에 대한 인식부족, 예산부족 등의 이유로 저상버스 확대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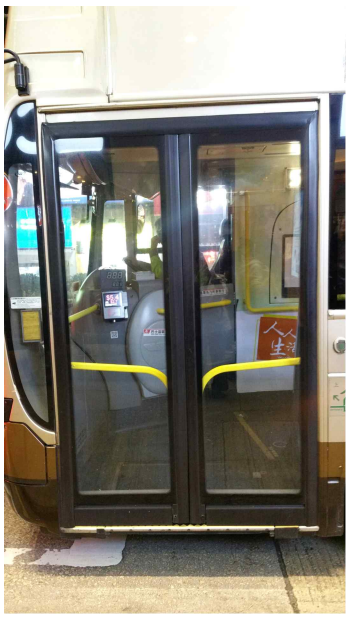
○ 그러나 정부와 자치단체가 노인인구의 지속적으로 증가로 사회구성원의 비율이 변화하고 있는 것에 대한 대비와 휠체어 이용 장애인도 우리 사회의 한 구성원이며 이들과 함께 누구나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시설물을 디자인하고 도입해야 한다는 확고한 의지만 있다면 저상버스 보급률을 획기적으로 확대할 수 있다고 본다. (서울시의 경우 2021년까지 저상버스 보급률 100% 목표 발표)



<홍콩시내 2층 저상버스>



<교통약자 우선 좌석-머리받침대>



<버스 출입구(지상25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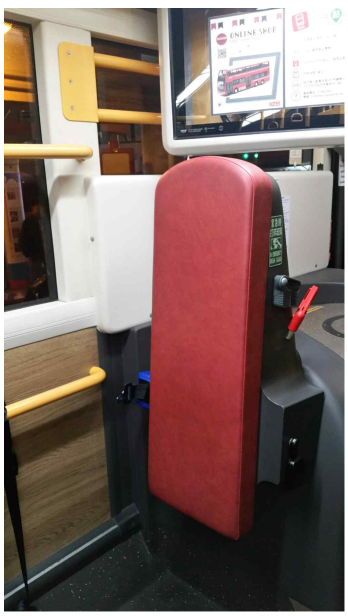


ⓒ 구룡모터버스회사 홈페이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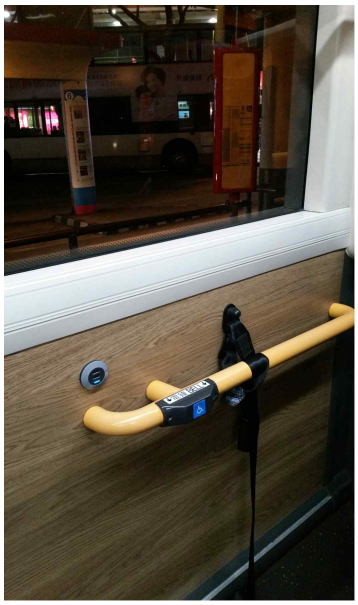
<휠체어 램프가 나와 휠체어 탑승 가능>



<휠체어 자리 안내도>



<휠체어 지지대>



<휠체어 지지벨트&눈에 띄는 노란색 손잡이>

5 걷고싶은 보행환경 조성을 위한 도시디자인

○ 홍콩의 경우 땅이 좁고 밀집된 인구로 인해 높은 세금을 물어 개인 차량등록을 억제하고 있다. (홍콩시민 자가용 보유율 4.9%) 때문에 대부분의 시민들이 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있으며 홍콩정부도 대중교통을 보다 편리하게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 이러한 대중교통이 발달하다보니 자연스럽게 보행환경에도 관심을 쏟고 있는데, 먼저 도심 도로체계를 차량중심이 아닌 보행자 중심으로 개편한 것이다. 또한 올드타운 센트럴(경사지)에는 세계에서 가장 긴 옥외 에스컬레이터인 미드레벨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기도 했다.

○ 홍콩정부는 2000년부터 홍콩 도심 보행환경 개선과 대기오염 완화를 위해 세 가지 종류 즉 풀타임 보행도로(Full-time pedestrian street), 파트타임 보행도로(Part-time pedestrian street), 교통 진정 도로(Traffic-calming street)를 조성한다. 풀타임 보행도로는 차량통행이 전면 제한되고, 파트타임 보행도로는 정해진 시간대에 차량통행이 금지된 것, 교통 진정 도로는 보도를 넓혀 보행자 중심으로 도로를 개선한 것이다. 약 5년간 시범과정으로 보행자도로를 확보·확대한 결과 보행환경개선뿐만 아니라 거리의 상권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되었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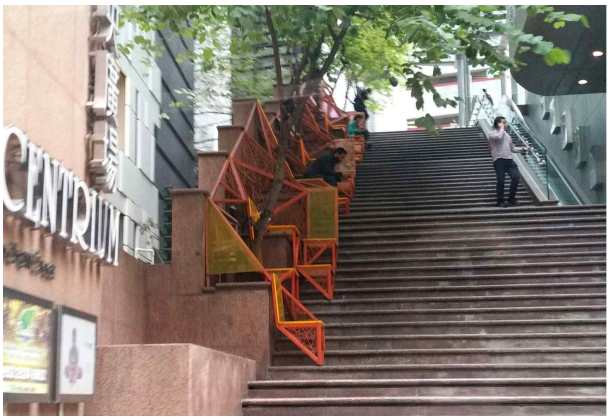
○ 실제로 많은 도시재생 전문가들은 거리를 살리기 위해 가장 먼저 할 일은 소규모 상점들을 살리는 것에 집중하라고 하는데, 그 이유가

소규모 상점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걸어가야 하고 걸어가는 길에 이곳저곳 들리게 되면서 그 거리가 활성화되고 거리가 활성화되면 동네가 활성화될 확률이 매우 크다는 것이다.

○ 보행환경 개선을 통해 상권 활성화를 유도하는 아이디어는 심각한 경기침체에 빠진 전북에 즉각 적용할 수 있겠다. 특히 현 정부 들어 도시재생 뉴딜 사업 추진으로 구도심과 저층주거지가 주요 사업대상이 되면서 쾌적하고 아름다운 보행환경 조성의 중요성이 커진 만큼 지역을 개발하고 도로를 조성함에 있어 보행환경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하겠다.

○ 도보여행자와 노약자가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걷기에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거리 곳곳에 벤치를 조성하는 등 거리를 조성하는 행정기관의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 홍콩의 경우 구도심인 경사지 계단 및 건물 사이 등 계단이 있는 곳이면 어김없이 멋진 디자인이 가미된 의자들이 조성되어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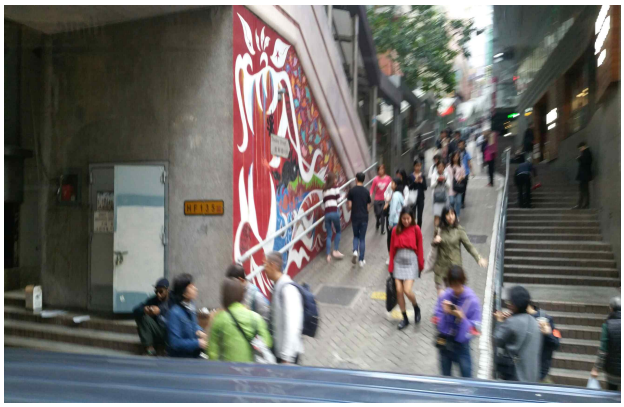
○ 야외의자는 지친 도보이용자들이 잠시 쉬어 갈 수 있도록 함으로서 거리를 아름답게 하는 경관조성 및 도보 장려라는 이중의 효과를 가진다. 단지 1년 내내 기후가 적당한 홍콩의 온화한 날씨가 있어 가능한 것이며, 전북의 경우 추운 겨울이 있다 보니 홍콩의 스트리트 퍼니처를 그대로 옮겨오기 보다는 걷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도보이용자들을 위한 쉼터 조성에 각별한 신경을 써야 할 것이다.



<계단활용 야외 벤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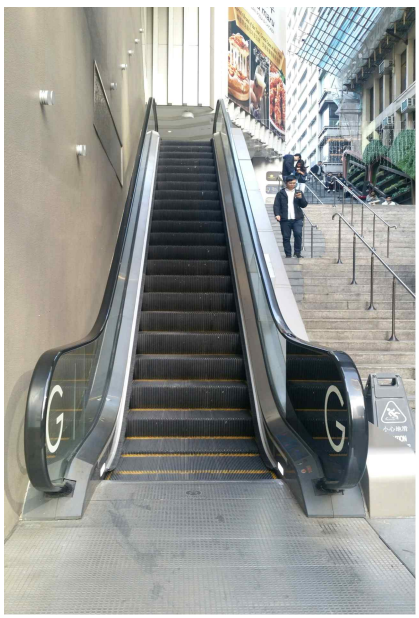
<경사지 계단참 의자 설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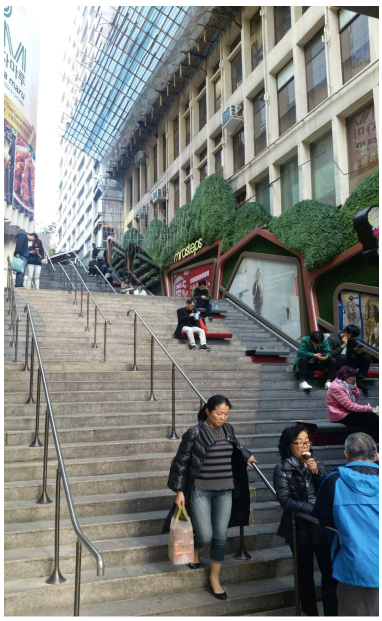
<계단과 경사로 동시 설치>



<PMQ입구 계단과 경사로 동시 설치>



<계단 옆 에스컬레이터 설치>



<계단 벤치 설치>



<계단 벤치 설치>

제4장 연수 후기

1 전라북도의회 정호윤 문화건설안전위원장

○ 문화재 복원과 보존에 적극 힘써야 한다.

◈ 선진국은 문화재 유지와 관리에 아낌없는 투자를 하고 있음. 이는 곧 문화재가 갖는 본원의 기능을 잘 살려 후대에 물려주고 그 안에서 배울점을 찾겠다는 의지임. 전라북도의 문화재도 일반 관람객을 맞이하는 용도가 아닌 그 문화제가 갖는 본원의 기능을 잘 살릴 수 있도록 보존에 힘써야 함

○ 문화유산분야의 적절한 연계(스토리텔링)가 필요하다.

◈ 매력적인 스토리텔링은 엄청난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음. 전라북도 내 시각적 유형문화유산만이 아닌 듣고 읽는 무형문화유산까지 한데 묶어 스토리텔링으로 연계하여 관광객들의 지적 호기심을 유발할만한 관광상품의 개발과 이를 활용한 영화, 애니메이션, 공연 등 각종 콘텐츠를 발굴이 필요함

○ 관광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최신 트렌드를 읽을 필요가 있다.

◈ 최근 한류열풍의 주역인 K-드라마, K-뷰티, K-POP 등을 적극 활용하여 도내 관광지와 접목시켜 외국인 관광객들이 직접 체험하고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함

- 한류배우 드라마에 나온 세트를 관광지화 및 식품 등 PPL
- K-POP 가수 및 한류배우를 통한 도내 관광상품 및 먹거리 홍보
- 체험상품의 개발 및 홍보(치즈 만들기, 한지 만들기 체험 등)

2 전라북도의회 이정린 문화건설안전부위원장

○ 도시재생은 변해야 한다.

◈ 도시재생은 정비사업의 개념에서 벗어나 사람이 중심이 되는 도시재생으로 변해야 함. 지역 주민을 적극 참여 시켜 그 역할을 부여하고 이를 통한 지역 일자리 창출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창조적인 접근이 필요함. 또한, 규모에 대한 강박관념을 버리고 규모가 작은 마을기업이라도 지역주민을 활용할 수 있는 기업들을 유치하는 것도 중요함.

○ 편리한 교통체계를 구축하는 것만이 답이다.

◈ 경제, 산업, 관광 등의 모든 분야가 발전된 도시는 대부분 공항이 존재하고 있음. 그 지역의 교통이 편리해야 물류가 들어오고 경제가 발전하며, 관광객이 손쉽게 찾을 수 있다는 것임. 전라북도 새만금 신공항이 조속히 신설되어야 하며 국내선뿐만 아니라 국제선까지 도입할 수 있도록 적극 힘써야 함.

○ 국제도시가 되기 위해선 MICE 산업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 선전의 컨벤션센터의 경우 규모는 크지 않으나 연간 끊이지 않는 회의 및 전시 등으로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음. MICE 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전시 컨벤션센터는 반드시 필요함. 다만, 그 규모나 웅장함이 아니라 컨벤션만의 특화된 운영 방식이 필요하며, 지자체의 MICE 산업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함.